

맑은샘광천말씀 QT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교회

2016 0910

날마다 주께로



미래를 열어가는 맑은샘광천교회



발행일 : 2016년 9월 1일
 발행처 : 맑은샘광천교회
 발행인 : 이 문 희
 편집위원 : 박상모, 유삼열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92(석관동)
 전 화 : (02)959-6002(대)
 팩 스 : (02)959-6005

편집 · 제작처 : 솔라피데출판사
 전 화 : (031)992-8692
 팩 스 : (031)955-4433
 메 일 : vsbook@hanmail.net

© 2016 KwangChun Printed in Korea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CONTENTS

가을목장축제	1
광천칼럼	2
광천기도제목	10
경건의 시간은 이렇게	14
날주 큐티 이렇게 활용하세요	16
9월 생활 계획표	21
성경탐구 - 마가복음	22
9월 1일	24
10월 생활 계획표	85
10월 1일	86
가정예배	148
목장 성경공부	177
찬양곡	205
이 달의 특별행사	208

본서 "날마다주께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생활화를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려는 "맑은샘광천교회"의 소중한 노력이며, 그 저작권은 "맑은샘광천교회"에 있습니다. "날마다주께로"의 성경묵상 해설 본문의 내용을 사용하려는 교회나 단체는 사전에 "맑은샘광천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맑은샘광천교회 Tel : (02)959-6002 Fax : (02)959-6005



맑은샘광천 기도제목

1. 맑은샘광천교회 2020 비전을 위하여

1. 2016년 “맑은샘광천교회”로 두 날개인 광천예배와 목장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도록
2. 광천교회가 지속적으로 2020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3. 광천의 비전이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되며, 한 마음으로 비전을 향하여 달음질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4. 각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으며, 자신의 비전을 하나씩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5.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 선포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6. 모든 교인이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2. 사역자 및 당회를 위하여

1. 담임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양의 기쁨이 더해지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더 깊어지도록
2.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과 강의를 통하여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모든 교역자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서로 돕고 사역함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4. 당회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매월 당회를 통해 선한 결정이 이루어져 광천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5. 당회원들과 임직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3. 맑은샘광천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하여

1. 전도단의 사역과 증보기도팀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져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2. 주일학교에 더 많은 은혜와 질적, 양적 부흥이 있으며 담당교역자, 교사, 학생 모두가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3. 교사들에게 영혼 사랑함을 더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이 배가되도록
4.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과 이들의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지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태국의 이강욱 선교사(박보경, 윤재, 윤서)의 푸른 초장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6. 인도네시아의 양춘석 선교사(박정렬)의 사역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며, 무슬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의 인수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7. 김순자 선교사, 신순이 선교사, 조계순 선교사 모두 맑은 사역을 훌륭히 감당하며 건강과 지혜가 매순간의 사역가운데 임하도록
8. 정동식 선교사(박미선, 예원, 예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열매와 부흥이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박미선 선교사의 항암치료가 잘되어 영육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9. 인도네시아로 파송된 장영민 선교사(조신애, 시환)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언어습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10. 인도네시아로 파송된 한순기 선교사(오문아, 송은, 도현, 상현)가 정이 빠른 시간 안에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습득에 진보가 있도록
11. 증보기도실의 기도가 광천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되어 지도록
12. 계속 진행되는 일대일 양육자반과 동반자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13. 사랑나눔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14.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예배와 모임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15.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구원의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16. 가을목장축제 작정주일과 선포주일을 통하여 온 성도가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도록

4. 맑은샘광천교회의 새 가족을 위하여

1. 매주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2. 목장축제 기간 중에 오신 모든 새 가족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도록
3.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새가족교구를 통해 잘 양육되어 신앙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4. 성장반으로 모두 연결되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며, 더 깊이 있는 신앙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5. 새 가족들이 광천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목장 안에 잘 배정되며, 교회 안에 자신에게 적합한 사역에 배정됨으로 성도들과 좋은 신앙의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5. 맑은샘광천교회의 가족들을 위하여

1. 여러 가지 어려움(건강, 사업의 위기, 실직, 구직난, 재정적 어려움, 영적 위기, 가정불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도록
2. 새가정을 꾸민 젊은 부부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우시며,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태의 문이 열리도록
3.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새가정을 꾸리며, 자신에게 꼭 맞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4.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생명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며, 그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도록

5. 모든 가정들마다 참된 행복이 넘치며, 가족들 간에 화복함과 서로 사랑함이 더해가도록
6. 노년의 어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남은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7.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주어진 학업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재목들이 되도록

6. 각종 집회와 모임을 위하여

1. 매주 드러지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예배 때마다 갱신과 부흥을 맞볼 수 있도록
2. 젊은이 예배를 통하여 광천의 젊은이들이 신앙의 부흥과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로 자라나도록
3. 수요기도회, 금요 영성집회, 새벽기도회 등 각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각 심령에 위로하심이 더해가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뜨거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4.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가르치며 섬기는 교사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아이들을 대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5. 목장교회를 위하여
 - 매 주일 모이는 목자, 부목자모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 교구와 목장이 잘 정착되고 운영되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사랑하고, 떡을 떼며,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 목자들에게 영권을 부으시고 목장의 오이코스들이 참석하고 배가되도록
6.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7. 중보기도실의 기도가 광천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되어 지도록

경건의 시간은 이렇게 *QT*

망망대해에서 돛단배가 나아갈 바를 아는 것은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 인생의大海에서 운항하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격려와 위로를 맛보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면,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건의 시간을 위한 7가지 단계입니다.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큐티하는 성도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2단계 **준비기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며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3단계 **찬양**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경건한 성경읽기**

오늘의 성경 본문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5단계 깊이 있게 묵상하기

관찰-해석-적용의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은 문맥을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날마다 주께로」의 ‘핵심 어휘’ ‘묵상을 위한 길잡이’ ‘관찰 질문’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로」의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 ‘전체 개관’ ‘오늘의 말씀’ ‘연구와 묵상’을 활용하시면 더욱 더 풍성한 해석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은 관찰과 해석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개인의 믿음, 인격, 삶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께로」의 ‘삶에 적용’란과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단계 기도와 실천

자신이 깨달고 세운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곧바로 잊혀 지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7단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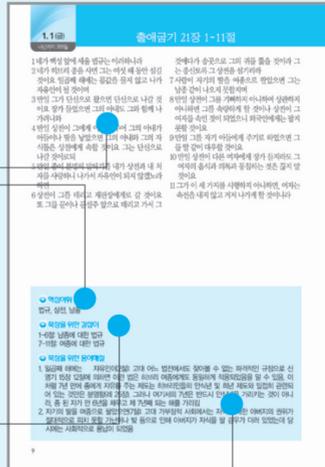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나눔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큐티를 나누어 주십시오.

날주 큐리! 이렇게 활용하세요!

날마다 주께로는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묵상집입니다.
개인의 깊이 있는 성경묵상과 큐티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관계성 형성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 성경본문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 1-10절 내외로 본문을 구성했으며, 절
별로 끊어 읽기 쉽게 구성되었습니다. 또 큐티를 위한 어떤
도움말보다도 본문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
록 가장 첫 면에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옆
에 큐티를 돕는 다른 란들을 보기 전에 본문
을 여러 번 경건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핵심어휘

그날의 본문 중 묵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핵심적인 어휘를 찾아내 기록하였습니
다. 자신이 직접 경건한 읽기를 통해 발견
한 핵심 어휘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3. 묵상을 위한 길잡이

복잡한 성경 본문을 단락을 따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
별로 단락구분을 해주었습니다.
길잡이를 참고하면서 자신이 직접 단락을 나누어 보면 더욱
더 유익할 것입니다.

4. 묵상을 위한 용어해설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을 위해 어려운 용어나 신학적인 용어
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2016년 목장 성경공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 10월 목장 공과에 대해서

9, 10월 목장 공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말씀’입니다. 1과는 일반 신념과 참된 진리인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서 말씀이 모든 것의 참된 기준임을 제시합니다. 2과는 진리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말합니다. 3-6과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3과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4과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5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의 실재를 보여줍니다. 6과는 엘리야를 통해서 때로 지치고 힘든 삶에 참된 위로가 말씀임을 제시합니다.

7-9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창조♦타락♦구속을 말씀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7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8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9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목장 공과의 도움을 위한 설명

Today's Focus

오늘의 핵심이라는 말로 당일 목장공부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위쪽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Today's Focus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

Discernments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Discernments는 영어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Today's Focus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가져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한 마디로 공과 주제에 따른 실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입니다.

또는
성경
지혜
의로
온전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9월 첫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할마리아 구원에 이르른 자제가 있게 하도나라.
많은 선함은 자녀의 믿음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온전케 하려 함이니

1과. 진리 vs. 선명: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말씀(성경)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은~

사례1: 어떤 성도가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자녀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주일에 교회에 가기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례2: 어떤 성도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권세 등의 조건을 보지만, 자신은 믿음만 보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말하던 성도는 학벌, 경제력, 직장 등을 먼저 묻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가장 늦게 물었습니다.

1. 동의: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2. 반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닙니까?
3. 동의와 반대 외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삶의 기준 말씀(성경) [신명기 11장 18절- 20절]

1.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18, 20절)?
2.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까(19절)?

3.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곳에 두고 모든 장소, 모든 때에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딤후 3장 16-17절:

신 11장 21-25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고(1과 내용), 둘째, 예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진리이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4. 항상 말씀을 읽고 배우라고 하는데, 하루 혹은 한 주에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Today's
Focus

예수님이 말씀이며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올바른 삶과 참된 축복의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문화) 읽기

1.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정, 직장, 교회)에 통용되는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적고 나누어 봅시다.

성경의 원리:

세상의 원리:

2.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나 가르침(책, 인터넷 정보 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은 어떤 차이를 가집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터모던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터모던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진리의 상대성입니다. 모든 주장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기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시대 정신과 반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신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며, 다른 가르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포스터모던이 말하는 상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HOT 토론

말씀보다 더 많이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다른 것(재산, 건강, 사회적 지위, 자녀의 출세 등)에 대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에 기초한 삶

Discernments

말씀(성경)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말씀이 올바른 삶과 참된 축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부나 문화에 관심을 쏟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해 봅시다.
 - ⇒ [둘러보기]
 - 자신의 삶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 쓰기(뒷담, 욕설 등)
 - ⇒ [실천보기]
 - 성경읽기표 작성 및 매일 읽기(하루에 3장), 홈페이지에서 주일 설교 다시 듣기
- 기도하기,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등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주중에 목원이나 성도들과 나누어 봅시다.

도내
살상은
지해
의로
온전
그리
모든
유익
온전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9월 둘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과. 모든 선택의 기준인 말씀: 말씀이 이끌어가는 세상



나의 선택은 ~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 라는 여객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02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꽃다운 학생들이 삶의 꽃망울을 터트려보지도 못한 슬픈 사건의 이면이 이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배가 기울어 물 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배 안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SNS 메시지 내용은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방송은 안 나와요.”였습니다. 살기 위해 방송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방송한 사람들은 그 안전한 배(?)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허둥지둥 나와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1.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배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2.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3.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말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18절]

1.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창 1:3, 6, 9, 11, 14, 20, 24, 26, 29)?

2.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보다 요한복음 1장이 하나님과 천지창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3.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14-18절)?

4.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2-3절, 10절)?

Today's
Focus

하나님이 말씀(말씀-하나님-예수님)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말 vs 하나님의 말씀

1.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이 그 주인공이고 처음 세상을 만든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핵심적인 특징, 다양성, 통일성)?

기독교의 인간론은 성악설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다고 합니다. 악함의 핵심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려는 선한 양심보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대로 행하십니다. 우주창조와 십자가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르니까(완전성, 신실성, 책임성)?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본문을 비교하며 서로 나누어 봅시다.



HOT 토론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 인터넷으로부터 얻는 지식이나 정보(네이버 지식인)와 성경으로부터 얻는 지식이나 정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차이).



말씀으로 세상 보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사람이 믿고 따라갈 말씀(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성경)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 [돌러보기]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순서대로 기록해 봅시다. 성경(예수님)은 몇 번째 입니까?

⇒ [실천보기]

새벽기도 참여하기, 수요일예배나 성경통독 참여하기, 금요성령집회 참여하기

- 위의 실천 사항 3가지 중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실천하고, 그로 인해 누린 기쁨이나 감정을 주중에 목원이나 성도들과 나누어 봅시다.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9월 셋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과. 말씀으로 준비하기 : 말씀으로 준비 되는 비율



오늘과 내일을 위한 나의 준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하면서 이후로의 평생의 삶의 조건이 돈이 행복의 조건이고,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될 만한 곳을 기웃거립니다. 아쉬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 돈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그런 준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토대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율 [갈라디아서 1장 11절-17절]

1. 회심 이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빌 3:4-6)? 그런 배경으로 무엇을 했습니까(갈 1:13-14)?

2.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니까(15-17절)?

3. 회심 이전에 사울은 어디에 기대어 살았고(14절), 회심 이후에 바울은 어디에 기대니까(11-12절)?

Today's
Focus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철저하게 말씀을 기초로 자신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문화) 읽기

1.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2. 사울과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산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지 3가지씩 적어 봅시다.
 - 사울:

 - 바울:



사울과 바울의 차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은 유대 전통, 가말리엘, 자신의 신분이 라는 세상의 권위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반대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삽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초대 교회 기둥들이었던 사도들을 만나기보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해 더욱 말씀으로 자신을 세웁니다.

3. 지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그것을 위해 준비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바울은 어디에 가장 집중하라고 할지 생각해 봅시다.



HOT 토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은 것들과 보장된 성공의 길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경험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긴 것을 뒤로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으로 오늘과 내일의 토대 놓기

Discernments

행복한 미래, 성공한 인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듬어 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실천해 봅시다.
 - ⇒ [둘러보기]
 -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기 어렵게 하는 세속적 원리에 기초한 우선순위 쓰기(인간관계 등)
 - ⇒ [실천보기]
 - 이번 주에 목장 모임 꼭 참여하기, 성도 한 명 이상과 큐티 내용 나누기
- 주중에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면서 얻은 유익이나 느낌을 목원이나 성도들과 나누어 봅시다.

도네
살림은
지혜의
의로
온전케

그러므로 매우 아끼는 마음으로 영아람아 구원에 이르른 지혜가 있게 하도니라.
모든 살림은 하나님의 관동으로 된 것으로 고후의 생명의 바르비 친의 의로 교육함기에
유익하니 온전케 하

영아람아 구원에 이르른
의로 교육과 생명의 바르비 친의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9월 넷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과. 말씀으로 세워지기: 말씀에 굳게 선 베드로



내 생각은~

다음은 단종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성삼문이 지은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 봉에 낙랑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

아래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생각을 수시로 바꾸면서 그런 모습을 정당화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 조아리고, 약한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괴롭힙니다.

1. 어느 쪽이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에 가깝습니까(예를 들어서 말해 보세요)?
2.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절-21절]

1.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까(17-18절)?

2. 왜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2절)?

0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이유는 4장 2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2절처럼 한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을 알았기에 사전에 싹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3.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와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19-20절)?

4.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까(8, 10, 12절 / 행 3:6 참고)?

5. 내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 되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진 당시 지도자들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Today's
Focus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힘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문화) 읽기

1. 삶 속에서(가정, 직장, 교회) 신앙인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과 신앙인다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이유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내가 말씀의 원리에 분명하게 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녀에게 명문대 강요하기', '유행(옷, 건강식품 등) 따라 하기' 같은 것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시각과 주위의 일반적인 시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3.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과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고치거나 바꾸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세상의 힘에 주눅이 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눈치를 보면서 하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방학이 되어 수련회를 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수련회를 빠지고 학교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불들려 있으면 세상 앞에 당당하고(4:19-20),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 설 수 있습니다(3:6).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HOT 토론

요즘 우리 주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행복(?) 비난을 받으며 당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할 때, 세상에 당당할 수가 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생활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을 주위에 보여줍니다.
 - ⇒ **[돌러보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적어보기(눈치 보면서 식사 기도,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음)
 - ⇒ **[실천보기]**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기(예수님 전하기, 우리 교회 자랑하기(교회 크기가 아닌 본질))
-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일(긍정 또는 부정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이 힘들었는지)를 목자나 교구 사역자와 나누어 봅시다.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10월 첫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과. 말씀으로 승리하기: 말씀대로 산 사도 바울



내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겉으로 볼 때,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 성경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에도 학원을 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의 경우 성경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2. 이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본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6절-10절]

1.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까(6-7절)?
2.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생각과 의지를 막고 다른 길을 제시한 분은 누구입니까(9-10절)?

3. 바울은 자신의 결단과 하나님의 막으심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10절, 11-12절 참고)?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고후 10:4-5)?

Today's Focus

성도는 자신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문화) 읽기

1.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 명예,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2.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계획한 것 중에, 혹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막으실 만한 것이 있다면 왜 막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3.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이나 기대는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포스트모던 사회는 가치의 기준이 상대적이고, 주어진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대학의 학과도 폐지할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자신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HOT 토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막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에 기초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기초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초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대로 살기

Discernments

성도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말씀과 다르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 [둘러보기]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생활하는 것을 적어보기(기분대로 행동, 자기 욕심 성취를 위한 기도 등)

⇒ [실천보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비전 세우기(자녀에 대한 비전, 삶의 기준, 노후에 대한 계획)

-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에 따르면서 경험한 것들을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나누어 봅시다.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10월 둘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과. 말씀으로 위로 받기: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엘리야



내 생각은~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꾼에게는 천 가지 걱정, 만석꾼에게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이 세상에 염려나 답답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걱정과 염려,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해 줄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힘이 들 때, 가장 많이 기대고 위로를 얻는 대상이 친구입니다. 공감을 잘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말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공감을 잘해 주는 친구 관계에 대해 힘들어 합니다.

1. 친구가 힘이 되었던 경우를 나누어 봅시다. 또는 친구 관계로 힘들었던 경우를 나누어 봅시다.
2. 친구 관계가 힘든 이유를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에 힘을 얻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8절]

1. 엘리야가 한 일을 들은 이세벨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1-2절)?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홀로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다가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이 사건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걱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2. 이세벨의 선전포고를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3-4절)?



죽여 달라는 것과 스스로 죽는 것은 다릅니다. 엘리야는 죽여 달라고 합니다. 죽여 달라는 말은 현실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생명의 주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은 힘든 현실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8절)?

Today's
Focus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답답함을 위로하고
포근하게 안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문화) 읽기

1.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한 가지를 예로 들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해 봅시다.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나누어 봅시다.
2.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외로움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배우자, 자녀, 친구 등).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한, 변함없는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다른 쪽의 마음이 변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불변하고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HOT 토론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까(빌 4:6-7)?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나 주변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으로 어려움 이기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외로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생활을 실천해 봅시다.

⇒ [둘러보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누구에게 먼저 상의하는지 순서대로 3가지 적어보기

⇒ [실천보기]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 알려주기(공부 내용 전달)

-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위로의 경험을 목장 모임에서 나누어 봅시다(사람이나 물질로부터 얻은 위로와 어떻게 다른지).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10월 셋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과.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창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각은~

지구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2013년 보고서), 지구의 20%가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30%, 중동과 몽골의 20%가 사막화 되어 갑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데워지면서 매년 북극의 얼음이 줄어 들고, 그 결과 북극곰들은 줄어드는 먹이를 두고 싸웁니다. 북극곰이 한 해에 40마리의 바다사자를 먹어야 하는데 기후 변화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결과로 플랑크톤이 줄어듭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먹이사슬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 지구 온난화는 무분별한 개발이 주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밀림은 이미 축구장 2만여 개의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밀림이 사라진 원인이 석유, 목재, 고무 등의 자원을 얻기 위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 공생을 해야 하는데, 인간 편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공멸로 갈지 모르는 위험을 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1. 위에서처럼, 주변의 생태계 파괴의 예를 들어 봅시다.
2. 하나님은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기를 바라십니까?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장 26절-28절]

1.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26절)?
2.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세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28절)?
 - 1)

2)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유일한 존재로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종합하면, 우주 만물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3. 타락 이전에 아담과 우주 만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29-30절)? 아담은 자연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창 2:19-20)?
4.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명령으로 볼 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누구이고, 또한 어떻게 움직이니까(롬 11:36)?

Today's Focus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인 사람에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문화) 읽기

1. 타락 이전의 아담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면(시작하는 글 참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2. 타락 이전의 인간이 모든 문화(자연)와 조화를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든 문화(자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자연과 문화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타락 이후의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HOT 토론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연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셨습니까? 나아가 어떤 문화를 만들겠습니까? 좋지 않은 문화(나이트 클럽, 술집)와 고통 받는 생태계(산성비, 공기 중 미세먼지)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나누어 봅시다.



문화명령에 따라 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받은 크리스천은 이 땅의 문화와 자연이 건강하고 밝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문화를 실천합니다.

⇒ [둘러보기]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무분별한 개발이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 문제가 되는 환경 파괴에 관한 것 찾아보기

⇒ [실천보기]

자신이 즐기는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적어보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욕설, 비방 등)

-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고 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을 휴대 폰 문자나 카톡 등으로 목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도내
성경은
지혜의
의로
온전케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10월 넷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영아담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칭의 의로 교유함기에
유익하게
온전케 하

영아담아 구원에 이르는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칭의

8과.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타락: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



내 생각은~

사람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선한가, 혹은 악한가를 다루는 것이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동양에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이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순자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본래 선하다는 예로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불쌍히 여겨 구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달리 순자는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며, 예쁘고 좋은 것을 탐한다고 하면서 본래 악하다고 했습니다.

1. 사람은 본래부터 선하다(성선설)와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다(성악설)에 대한 두 견해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되돌리고 싶은 사건 [창세기 3장 1절-19절]

1.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적어 봅시다(1-19절).

○ 4-5절:

○ 6절:

○ 16-18절:

○ 19절:

2. 뱀과 하와의 대화(4-6절)를 볼 때,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 것 같습니까(타락의 이유: 잘못된 말을 들어서 / 참고)?
3. 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까(창 2:16-17, 3:17-19 타락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4.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롬 3:9-18)?
5.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사람과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성선설과 성악설에 빗대어 설명해도 좋음)?



Today's
Focus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그늘 아래 있는 우리

1.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여 문제가 되었던 경우를 나누어 봅시다(예: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여행 가기, 회사에 가야 하는데 무단 결근하기).
2. 틀린 말인데 나를 위하는 듯한 달콤한 말로 인해 낭패를 본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음).
3.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당신께 복종시키라고 합니다(고후 10:5).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프란시스 웨퍼는 우리의 이성(생각)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타락한 이성으로 하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면, 거룩한 이성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이성(생각)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HOT 토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대한 하와의 반응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먹고 핑계를 댍니다. 선택은 자신이 해놓고서 나쁜 결과에는 핑계를 대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 또는 주위에 이런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불순종 뛰어 넘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기저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리는 것을 실천해 봅시다.

⇒ [둘러보기]

자기중심적인 것 3가지 적어보기(예/ 챙김을 받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해야 한다 등)

⇒ [실천보기]

가정, 교회, 직장에서 자기를 위해 누리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것을 적고 실천하기(예/ 다른 누군가가 하던 일을 내가 하기)

-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을 목원이나 성도들과 나누어 봅시다.

2016년 목장 성경공부 - 10월 다섯째 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과.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구속: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내 생각은~

타락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에덴동산에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와서 먹어도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자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아픔의 연속이 되었고 결국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인간의 불순종! 이것이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슬픈 타락 이야기입니다.

구속 이야기: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겻세마네 동산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예수님은 다음 날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 인간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1. 타락 이야기와 구속 이야기를 대표 원리의 측면에서 말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6절-46절]

1. 예수님은 인간적인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불순종의 길 대신에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39절, 42절)?

2.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사 53:4-7, 롬 5:19)?

3. 불순종의 치명적인 결과와 순종의 놀라운 결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나누어 봅시다.

Today's
Focus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간에게 새 생명과 아름다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문화) 읽기

1. 일상생활에서 정해진 원칙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낭패를 본 경우가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어떤 원칙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칙을 따름으로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었던 경우를 나누어 봅시다.
3.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이면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아래 설명을 참고)? 나는 둘의 이면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이면에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선언에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는 의구심 담긴 마음이 있었고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의 순종 이면에는 철저한 자기부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가능하다면 당신 자신은 어떻게 되셔도 좋다는 결심으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HOT 토론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대표 원리로 설명합니다. 대표로 한 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대표 원리를 주변에서 찾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의 순종 본받기

Discernments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

- 한 주간 생활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성경을 읽읍시다.

⇒ [둘러보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고쳐야 할 생각이나 자세를 기록하기(성경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 성경을 단순한 고전으로 여기는 자세 등등)

⇒ [실천보기]

창세기 3장,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26장, 로마서 5장, 빌립보서 2장을 읽기

-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말씀 중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기록하여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1.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 게 있 는 향 유 옥 합 주 게 - 가 저 와

그 밭 위 에 입 맛 추 고 개 끄 - 립 니 다 *Fine*

1. 나 를 위 해 험 한 산 길 오 르 - 신 그 밭
 2. 나 를위 해 십 자 가 에 달 리 - 신 그 밭
 3. 주 님 다 시 이 땅 위 에 잉 하 - 실 그 때

결 음 마 다 크 신 사 랑 새 겨 - 놓 았 네
 흥 름 피 로 나 의 죄 를 대 속 - 하 셧 네
 주 의 크 신 사 랑 으 로 날 받 아 주 소 서



2.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있는 곳 - 내 주의 강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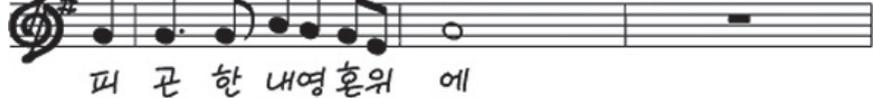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있는 곳 - 내 주의 강가로



 갈 하나의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영혼위에



 아 - - - - 아 아 - - - - 아 내

3.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 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 보 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

보 라 너희는 자치 말고 - 보 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

너 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 너 희를 억누르던 - 원수는 어디 있느냐 -

보 라 하나님 구원을 - 보 라 하나님 능력을 -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 주의 손을 보라 보 손을 보라

맑은샘광천교회 - 이 달의 특별행사

월	일	행 사
9	5(월)-7(수)	제81차 새벽십일조기도회
10	2(주일)	가을목장축제 작정주일
	3(월)-5(수)	제82차 새벽십일조기도회
	9(주일)	가을목장축제 선포주일
	14(금)	가을목장축제 특별집회
	21(금)	가을목장축제 특별집회
	28(금)	가을목장축제 특별집회

가정 예배지 안내

1. 본 가정 예배지는 주중 하루 시간을 정하여 가정별로 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예배 자료입니다.
2. 본 가정 예배지는 정한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온가족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3. 각 가정 중에서 특히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경우에는 대화와 토의를 통하여 가족들 간의 친밀감을 보다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발행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훈계나 설교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대화식 예배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지향해보십시오.